

즉시 배포용: 2019 년 2 월 11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2018 년 뉴욕주 1,000 곳에서 대테러 합동 훈련을 완료했음을 발표
기업체, 조직 및 일반 공중에 의한 의심스러운 활동의 조기 신고를 장려하는 훈련으로 안보 강화

20 개 “NY-SECURE 작전” 훈련이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주 전역의 기차역에서 실시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대테러실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Office of Counter Terrorism)이 2018 년 1,000 곳에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각 훈련 과정에서 주와 지역 기관에서 파견된 대테러 전문가들은 손님으로 위장하고, 사업체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식 및 보고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. 2018 년 실시된 1,000 건의 훈련은 Cuomo 주지사가 2016 년 시정연설(State of the State Address)에서 사무국에 지시한 이래로 56 퍼센트 증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. 게다가 사무국은 연방, 주, 지역의 법 집행기관과 NY-SECURE 작전 수행에 협력하여, 주 전역의 기차역에서 20 건의 대테러 및 즉각 반응 훈련을 완료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뉴욕주는 절대 테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테러가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. 이 훈련은 법 집행기관의 대테러 준비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, 사업체와 대중들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.”

올해, 대테러실(Office of Counter Terrorism)은 주 전역의 100 여 기관의 400 명 이상의 법 집행 인원과 협업하여 모든 카운티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훈련이 실시된 곳은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들입니다. 이러한 사업체들은 수많은 테러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팀은 172 개의 트럭 대여점, 134 개 철물점, 111 개 호텔, 75 개 트론 소매점, 69 개 총기 및 스포츠용품 상점을 비롯하여 폭발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부품을 취급하는 기타 대형 소매점과 사업체 다수를 평가했습니다. 운동경기장, 교통 중심지, 쇼핑몰, 대학, 병원 등 인구 밀집 지역 다수에서도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

다양한 사업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전략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찰 및 보고하여 체포로 이어지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. 한 예로, 2018년 봄 대형 소매점은 지역 경찰서에 의심스러운 물품을 구입한 고객을 신고했습니다. 많은 집행기관에서 합동 수사를 진행한 후, 한 명이 폭발 장치 및 방음기 소지, 그리고 라이플을 구입하면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, 기소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사례는 뉴욕의 전반적인 대테러 자세를 개선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.

이러한 훈련의 성과에 힘입어, 주지사는 2019년 시정연설(State of the State Address)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까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이러한 확대에 의해 주요 인프라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들이 당면한 위협은 물론,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Patrick A. Murphy 현직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집행기관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는 것은 뉴욕 주민이 공공 안보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. 이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 주민이 테러 방지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사업체와 그 고용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.”

1,000 건의 훈련과 더불어, 사무국은 또한 연방, 주, 지역 집행 기관과 “NY-SECURE 작전” 수행에 협력하여, 암트랙(Amtrak) 루트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(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, MTA) 통근 노선을 따라 대테러 및 즉각 반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본 작전의 목표는 공조 능력과 각 역을 책임지는 철도 경찰 기관, 주, 지방 법집행기관 간 대응을 개선하여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. 눈에 띄는 훈련으로는 플랫폼 순찰 강화, 기차 내 보안 개선, 폭발물 탐지견 배치, 대감시 수단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. NY-SECURE 작전에 따라, 암트랙(Amtrak) 노선 및 엠파이어 라인(Empire Line)을 따라 위치한 지하철역(MTA stations)의 6 개 역에서 동시 훈련을 실시했고, 주 전역의 단일 역에서 추가적으로 14 개 훈련을 완료했습니다.

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) 소개

[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\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\)](#)은 테러, 천재, 위협,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, 이로부터 보호하고, 대비하고, 대응하고,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,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[페이스북](#) 방문, [@NYS DHSES](#) 트위터 팔로우 또는 [dhSES.ny.gov](#) 를 방문하십시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